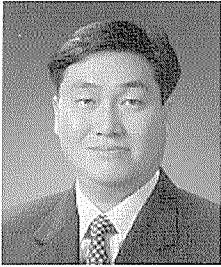


제주대학교

정범진 교수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 책임지도교수 선임



제주대학교(총장 부만근) 정범진 교수(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가 또다시 원자력 대학생 논문연구회 책임지도교수(회장)로 선임되었다.

원자력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제3기 원자력 대학생 논문연구회’는 7월 9일(금)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교수가 또다시 책임지도교수(회장)로 위촉돼 초대부터 3기까지 연속해서 논문연구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 교수는 영국 맨체스터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문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개발위원회 전문가

그룹위원, 산업자원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제3기 논문연구회의 경우 학부 46개, 대학원 10개 등 56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연구회 회원들은 과학기술부로부터 1인당 연간 500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논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연구현장 체험, 원자력 유관 기관 방문, 각종 강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정 교수는 “제3기 연구회부터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한 게 특징”이라며 “지난해보다 과제 수를 줄였지만 제주대학교에서도 대학원생 1명과 학부생 6명 등 7명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일보/연합뉴스, 2004.7.12-

국내 동향

관세청

X선 투시기술로 밀수품 색출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포스테이타(대표 김광호)와 컨테이너 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관세청이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의 반입과 농수산물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X선과 방사선을 이용, 컨테이너 내부의 적재물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게 그 골자다. 이 시스템은 컨테이너를 비롯한 대형 화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X선을 비롯한 방사선을 이용해 컨테이너내부를 투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400mm 두께의 철판까지도 정확하게 투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컨테

이너를 열고 검색할 때보다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컨테이너 밑바닥과 옆면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밀수품을 숨기는 행위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해상보안법 적용에 따라 컨테이너의 경우 선적지에서 X선 검색을 수행한 화물에 대해서만 입항을 허용, 전세계적인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수출에 대한 기대도 밝다.

한편 관세청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이어 2010년까지 국내 28개의 무역항에 컨테이너검색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연합뉴스 외, 2004.7.5-